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4주년 추모식
추모사

오늘은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24주년 탄신일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금년에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선생님의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과 민족자강 그리고 민주건국의 숭고한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여 세계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면에서 계속 흑자(黑字)를 가져왔고, 연간무역액도 1조억불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6월 4일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 시도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연안여객선이 침몰하여 수백명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역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고귀한 영혼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펼치신 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 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서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敎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몇 가지를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없던 시절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선생님께서 인촌(仁村) 김성

수(金性洙)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도 정열을 쏟으셨던 동아일보가 김재호(金載昊) 사장 체제로서 2011. 12월에 개국한 “채널 A”와 더불어 계속 크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20년 일제(日帝)의 잔혹한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민족의 표현기관을 자임하고 출범한 동아일보는 창간 94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분단 체제를 넘어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선생님 생가와 새로 건립한“근대역사문화교육관(近代歷史文化教育館)”은 건물에 대한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금년 상반기까지 진입로 확장정비 등 환경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후원을 받아 선생님의 탄신 125주년, 서거 70주년이 되는 내년(2015년)에 선생님의 일대기를 누구나 알기 쉽게 엮은 만화책의 발간과 학술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 추모사를 해주실 김영식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무대리 보훈과장님과 광복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님께서 고하송진우 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세계적으로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속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중책을 맡아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信賴)와 국격(國格)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그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기간 봉사해왔던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 회장직까지 계속 겸직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박사는 위와 같이 대단히 분명한 중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진운에 따라 민족중흥과 평화통일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 굳게 뭉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굳은 신념, 애국 정신과 독립정신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